



- 발행처 : 사천이씨 대중회
- 발행인 : 회 장 이 선 영
- 편집인 : 부회장 이 영 근
- 발행일 : 2019년 4월 21일

주소 : 경남 사천시 정동면 여옥길 9 | <http://cafe.daum.net/sacheonleec>

문중사(門中史),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나



사천이씨 대중회
회장 이 선 영

전국에서 549명의 종인이 동참하여 시조사우 조원사를 봉건하고 무인보(戊寅譜)발간 사업을 마무리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국현(國賢)으로 추앙(推仰)되는 구암 이정(李楨) 선조의 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구암학 연구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 씨족에 대한 인지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 구암연구 논문이 30여 편 발표되었고, “구암총서” 발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副應)하기 위해 작년 4월 대중회 총회에서는 선조유적보존 연구위원회를 구성

하여 후손들이 체계적으로 문중사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대사회에 맞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결의했다.

역사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이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없이는 역사가 존재할 수 없고 그 기록이 있다 해도 고증(考證)될 수 있어야만 역사로서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문중사도 마찬가지다. 선조께서 남기신 훌륭한 업적은 먼저 그 기록이 있고 후손이 이를 유지·보존하였을 때에 역사가 되기 마련이다. 이순신 장군이 옥중에서 스스로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임진왜란사의 전모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 역사를 만든 인물이다.

570년 전 6세조 교도공(教導公) 선조께서 세조(世祖) 때 강맹경 영의정으로부터 받은 수서시(壽瑞詩)는 우리 문중사의 상징적이고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년이 지난 1542년 공의 5세손인 구암 선조께서는 교도공의 현손(玄孫)이며 자신의 종숙부(從叔父)인 두(斗)조가 소장하고 있던 이 시(詩)를 받아 그 당시 50명에 가까운 고관명현의 차운(次韻)을 받고 농암 이현보, 퇴계 이황, 한음 이덕형 선생의 서문과 발문으로 수서시첩(壽瑞詩帖)을 발간했다. 이 시첩은 단순히 장수(長壽)를 칭송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孝道)와 어른에 대한 공경(恭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구암 선조 역시 스스로 역사를 만든 인물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문중사의 초안은 우리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수서시첩, 구암집, 대동보, 구암연보, 씨족사대요 등을 기초자료로 삼아 만들어졌다. 선조들께서는 초보(初譜, 1771년)부터 계축보(1973년)까지 200년 동안 여섯 번의 족보를 만들어 문중사를 이어왔고, 1973년 총친회가 창립되면서 문중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구계서원의 분쟁은 해방 후에까지 계속되어 문중사의 기록은 단절되었고, 70년 이란 긴 세월동안 구암선조의 봉향이 결제(缺齊)되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 다행이 1990년대부터 시조사우 조원사가 봉건되고, 구계서원 분쟁이 해결되면서 문중의 기운은 되살아나고 부흥기를 맞이했다.

금년 말 발간 예정으로 있는 문중사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업위원회에서현재 초안을 작성한 단계이다. 그 주요내용은 성씨의 유래와 씨족문화의 변천(I), 사천(동성)이씨의 성·본과 종파(II), 선조 사적록·문행록·효행록(III), 대중회 개관(IV), 파조문중별 내력(V), 수서시첩 개요(VI), 구암집 개요(VII), 구계서원(VIII), 구암학 연구동향(IX), 시조사우 조원사 봉건(X), 구암 이정선생 주요 사록(XI),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암총서” 발간사업은 사천시청,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 및 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문중사 발간사업과는 별개이며 성질이 다르다. “구암총서” 발간사업은 구암과 관련되는 모든 서적을 수집·번역하여 학문적 연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에서 문중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암 선조의 훌륭한 사적(事蹟)은 왜곡(歪曲)되어서는 아니된다.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잘못 전달하거나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고 묻으려고 한다면 이는 직접적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후손이 선조의 사적을 지나치게 침소봉대(針小棒大)한다면 이 역시 다른 사람의 우수한 사적에 대해 간접적 왜곡이 될 수 있다. 훌륭하고 화려하다시피 한 구암 선조의 사적은 보호되어야 하며 외부로부터 왜곡되지 않도록 전국 각지의 종인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2018년도 주요 증무 보고

구암선생 제446주기 제향 참배

▶ 4월 15일(일, 음 2.30, 丁丑). 11:00 구계서원



조원사 춘계대제 봉향 및 총회

- ▶ 4월 15일(셋째 일요일). 11:00
- ▶ 유사문중 : 성균진사공파 화암문중
- ▶ 초헌관 문중 : 참의공파 문중
- ▶ 종보 "부리" 1,000부 발간 배부

총회 결의로 문중사 발간을 위한 대중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구성



4. 29(일) 10시 사천시청 광장, 제9회 과거시험 재현 구암제 개최

7. 24. 일원재 서고 책장 공사 및 서적 정리정돈



8.10. 조원사 관리사 수리

9.12. 순천시에 「구암 이정 선정비」를 옥천서원과 임청대비 옆으로 옮겨 줄 것과 문화재 지정 대상 여부를 문서로 건의한 바, "향후 비석군 건립과 문화재 지정가치에 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라는 회신을 받음(문화예술과-11558호 2018.10.1).



11.23(금) 오후 2시 사천읍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구계서원이 개최한 3년차 구암총서 보고회 및 논문 발표회에 많은 종인 참석.



11.24(토). 오후 2시 사천문화원이 개최한 제17회 구암학술세미나 참석



2019. 1. 14. 시장에게 구암 이정 관련 논문 표절에 관한 조치 건의 내용

▶ 지금 사천지역은 2000년도 이후부터 구암 선조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개최되면서 전국 각 대학과 관련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30여 편이 넘는 알찬 논문이 발표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조명되고 있고, 구암제를 통하여 독특한 사천문화가 차츰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왔던 구계서원 분쟁을 종식하고 이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개최해 왔던 구암연구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자기논문처럼 표절하여 이를 문화원연합회가 발행하는 서적에 게재하는 일이 발생하여 부득이 시장님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논문의 표절은 발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의 본질이 폄하되고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자가 구암연구 활동을 기피할 수 있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문 표절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12월 2일 ○○문화원이 공연장에서 개최하였던 구암학술대회에서 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 박사는 "역사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방법-경남 사천의 구암 이정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200자 원고지 142매, A4용지 10호 15매 분량의 체계를 갖춘 논문입니다. 이 논문이 ○○문화원장 명의로 문화원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경남향토문화총람 9호에 원문 그대로 게재가 된 것입니다.

논문 발표자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문화원연합회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연구논문은 공식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것만으로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원은 그동안 구암연구 학술대회와 구암제를 개최하면서 독특한 사천문화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하여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을 계속해야 할 책무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게재의 취지가 설사 독특한 사천문화 형성을 위한 열정과 충정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논문표절은 우리 사회의 정서에 맞지 않고, 많은 구암학 연구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문중에서는 학자들이 구암연구 활동에의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을 미리 방지하고 학술대회의 본질이 만에 하나 폄하되거나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라도 이번 논문표절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도 주요 증무 계획

2019년도 정기이사회

▶ 일시 및 장소 : 2019. 3. 16(토) 11:00 조원사 일원재



구암선생 제 447주기 제향 참배

▶ 3. 31(일, 음 2. 25, 丁卯) 11:00 구계서원



조원사 춘계대제 봉향 및 총회

- ▶ 4. 21(셋째 일요일) 11:00 조원사 일원재
- ▶ 유사문중 : 백인재공파 고읍문중
- ▶ 초헌관 문중 : 첨정공파문중
- ※ 2020년 4월 춘계대제 봉향
 - 유사문중 : 우소재공파 대산문중
 - 초헌관 문중 : 우소재공파



종보 "부리" 원고, 년 중 수시접수, 발행은 매년 정기총회 시

▶ 제 출 처 : (우)52320 하동군 황천면 원곡길 50-1 이영근, 010-2586-2094, e-mail : leeyg@chol.com

▶ 선조이야기,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등 내용 제한 없음.

제10회 과거재현 구암제 (전국한시백일장) 개최

▶ 4.28(일).10:00 사천시청 광장



미리 보는 문중사

- (가칭)泗川(東城)李氏史總覽 목차 -

대종회 선조유적보존연구위원회

I. 성씨의 유래와 씨족문화의 변천

1. 득성(得姓) 및 득관(得貫)의 과정 2. 창씨개명(創氏改名) 강제외 수난 3. 성씨관계와 족보 4. 해방 후 민법 제정과 성별변의 원칙 5. 현대사회와 전통가족문화의 변천

II. 사천(동성)이씨의 성·본과 종파

1. 씨족의 연원(淵源)과 성관(姓貫) 2. 성관지(姓貫地) 3. 상세계도 4. 상계(上系)의 세거지(世居地) 5. 종파세계(宗派世系) 6. 전국 시·도별 종인 인구분포 7. 씨족항렬(行列)

III. 선조 사적록·문행록·효행록

1. 진주 연계재 입안 선현 2. 선조의 행장 1) 교도공 자(穰)조 행장 ~ 24) 봉강공 조헌(祖憲)조 행장 3. 구암선생 사적록 4. 생원공유적비 5. 참판공 묘정신도비 6. 송제공 화주대적기념비 7. 선조 문행록 8. 선조 효행록 9. 유인(孺人) 효열(孝烈)·열행(烈行)·정려(旌閭)실기

IV. 대종회 개관

1. 대종회의 유래 2.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연혁 3. 2000년대 선조유적 복원기(復元期) 4. 구암학 기반조성 및 문화행사 발원 5. 대종회 운영과 증무 6. 화수회 현황

V. 파조문중별 내력

1. 참지공파문중 2. 진사공파문중 3. 참의공파문중 4. 첨정공파문중 5. 우소재공파문중 6. 백인재공파문중 7. 성균진사공파문중 8. 선무랑공파문중 9. 생원공파문중

VI. 수서시첩 개요

1. 수서시(壽瑞詩)의 현대적 의의 2. 진사 이자(李穰) 교도공 3. 수서시첩 간행 및 중간발(重刊跋) 4. 진산부원군 강맹경 수서시 병서 5. 농암 이현보 수서시 서문 6. 풍기군수 상산 주세붕 수서시 병서 7. 관포 어득강의 경서우권후사 8. 전 지중추 정척 수서시 병서 9. 수서시 차운 기고 명현 35인의 신상 10. 청흥도감사 이몽량 차운 11. 청흥도사 주이 수서시 병서 12. 퇴계 이황 수서시 후발 13. 구암 이정 선조 수서시 후지 14 수서시 속집 차운기고 명현 11인의 신상

VII. 구암집 개요

1. 개설 2. 구암집 소재 한시(漢詩) 현황 3. 구암집 원집 4. 구암집 속집(문집권지일) 5. 구암집 별집

VIII. 구계서원

1. 한국의 서원과 선비정신 2. 대관대(大觀臺)와 대관대서재 3. 구계서원의 창건과 내력 4. 서원 경내시설 현황 5. 구계서원 분쟁사 6. 양단체 합의과정과 통합 7. 통합 전·후 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임원 연혁 8. 구계서원 부동산 목록 9. 2017년도 구계서원 운영현황 10. (사)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정관

IX. 구암학 연구동향

1. 구암연보 발간 2. 구암학 연구 학술대회 개최 현황 3. 학술대회 발표논문 요지(논문 31편) 4. 구암학 연구 총서 발간사업

X. 시조사우 조원사 봉건

1. 서문 2. 조원사기(肇原祠記) 3. 일원재 상량문(一源齋上樑文) 4. 조원사 준공기념사 5. 조원사 준공 현황 6. 조원사 봉건 의성금 출연 7. 조원사 공사비 내역 8. 조원사의 입지 9. 조원사 봉건 추진 경위

XI. 구암 이정선생 주요 사록(史錄)

1. 구암 이정(李楨)선생 행장 2. 사천시사(泗川市史)의 학행기(學行記) 3. 경상도 하과 장원(壯元) 홍문연도부 4. 과거시험 문과 별시 장원(壯元) 축망부(祝望賦) 5. 사제문(賜祭文) 6. 구산사비음명 병서 7. 구암 이정 묘갈명

<부록>

1. 족보 상식 2. 조원사향례활기 3. 사천(동성)이씨 대종회 규약 4. 사적 및 인물 찾아보기

올해의 구암총서 프로젝트

- 구암 자료 번역 대상 -



구계서원장 문학박사 이 은 식

구암선생과 연관된 자료를 정리하여 번역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번역을 해 왔던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오역이 많이 발견되어 모든 자료를 전부 다시 번역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컨대, 먼저 정보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구암집에 실려있는 자료들이 다른 문집이나 기록에도 실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제목이라도 서로 내용이 다르거나, 글자가 다를 경우가 발견됩니다. 그러면 어떤 글을 선택할 것인지 연구자들이 모여서 협의의 하는데, 이를 정보화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정보화하지 않고 그냥 구암집 등의 자료를 그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여 이 작업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북대학교 연구팀과 같이 조사한 자료를 올해 다음과 같은 번역작업이 실시됩니다.

1. 필수 번역 자료

1) 구암집

(1) 원집, 속집, 별집 (2) 번역(성기옥 옮김, 사천문화원·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 간, 2013.)

2) 구암 편간서

(1) 편서 ① 성리유편 : 사천문화원 편, 1991. ② 수서시 : 필사 번역본 있음. (그림 1) ③ 경현록 : (國譯)景賢錄 寒暄堂先生紀念事業會 編, 1970, 970p. 26cm

(2) 간서 서발문 ① 거업록요어(居業錄要語) ② 계몽전의(啓蒙傳疑) ③ 공자통기(孔子通紀) ④ 당감(唐鑑) ⑤ 의무려선생집(醫無閔先生集) ⑥ 주문공가례의절(朱文公家禮儀節) ⑦ 주부자감흥시(朱夫子感興詩) ⑧ 황명명신언행록(皇明名臣言行錄)

3) 구암금문록(龜巖及門錄)

(1) 강공헌(姜公憲, 1523~1583) (2) 유지(柳遲, 1526~?) (3) 변사정(邊士貞, 1529~1596) (4) 허개(許介, 1532~?) (5) 박오(朴畝, 1540~1594) (6) 정승윤(鄭承尹, 1541~1610) (7) 정사익(鄭思翊, 1542~1588) (8) 성여신(成汝信, 1546~1632) (9) 손엽(孫曄, 1546~1600) (10) 안극가(安克家, 1547~1614) (11) 강언평(姜彦平, ?~?) (12) 강유(姜愈, ?~?) (13) 유일(兪軼, ?~?) (14) 이응형(李應亨, ?~?) (15) 정대호(鄭大濩, ?~?) (16) 정두(鄭斗, ?~?) (17) 정인평(鄭仁平, ?~?) (18) 허사증(許思曾, ?~?)

4) 보유편(補遺篇)

(1) 록(錄) (2) 서(書) (3) 시(詩) (4) 제문(祭文)

2. 선택 번역 자료

1) 관찬사서

① 왕조실록 : 번역 ② 승정원일기 : 미번역 ③ 국조방목 : 미번역 ④ 국조보감 : (국역) 민족문화추진회, 1996 외. ⑤ 국조인물고 : (국역)국조인물고 1~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2007.

2) 구암(龜巖) 관련 문집(文集) 자료

① 고전번역원 및 기타 번역이 있는 경우 ② 번역이 없는 경우

3) 지지(地誌) 소재 자료 : 대체로 미번역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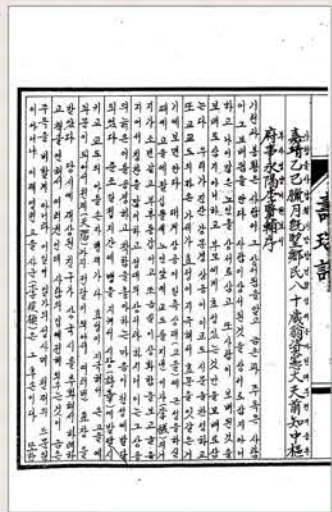
(1) 경주읍지(慶州邑誌) (2) 곤양군읍지(昆陽郡邑誌) (3) 교남지(嶠南誌) (4) 동경잡기(東京雜記) (5) 동경통지(東京通志) (6) 동성승람(東城勝覽) (7) 사천읍지(泗川邑誌) (8) 순천부읍지(順天府邑誌) (9) 신증승평지(新增昇平志) (10) 영지요선(嶺誌要選) (11) 일선읍지(一善邑誌) (12)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13) 하동지속수(河東誌續修)

4) 기사(記事) 전승 자료 : 번역 자료와 미번역 자료가 섞여 있음.

(1) 문헌전승 (2) 일기류 (3) 구비전승 : 번역 대상 아님

5) 구암(龜巖) 관련 유적 자료 : 대체로 미번역 자료, 번역 자료도 있음.

(1) 경현당(景賢堂) (2) 구계서원(龜溪書院) (3) 구암(龜巖) (4) 대관대(大觀臺) (5) 서악서원(西岳書院) (6) 옥천서원(玉川書院) (7) 임청대(臨淸臺)





참지공파 24세손 이 경 규

구산사(龜山祠)와 신도비(神道碑)

구산사(龜山祠)는 구암 이정선생(李楨, 1512~1571)을 추모하기 위해 광해(光海)3년 신해(辛亥) 서기1611년 만력(萬曆)39년에 세워지고, 구계(龜溪)라는 액호가 숙종(肅宗)2년 병진(丙辰) 서기1676년 강희(康熙)15년에 내려져 구산서원(龜山書院)으로 승격되었고, 1963년에 구계서원(龜溪書院)으로 등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구산사에 향사되고 있는 분은 이황(李滉), 자(子)는 경호(景浩), 호(號)는 퇴계(退溪), 진보인(眞寶人, 眞城人), 시호는 문순(文純)과 이정(李楨), 자(子)강이(剛而), 호(號)구암(龜巖), 사천인(泗川人), 관(官)부제학(副提學) 및 김덕함(金德誠), 자(子)경화(景和), 호(號)성옹(醒翁), 상주인(尙州人), 대사헌(大司憲) 증(贈)이조판서(吏曹判書) 익(諡: 시호)충정(忠貞)이다.



사당 아래 3개의 비석이 있는데, 사당 정면에서 왼쪽 첫 번째 비석이 구산사비(龜山祠碑, 1645)이다. 이 비는 사당에 세운 묘정비(廟庭碑)로 구암의 학문과 덕행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금석문이다.

이 비석을 구계서원대관대유계회(이사장 최상화, 서원장 이은식)에서 신청하여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635호(2018. 8. 9.)로 지정받았다. 다음은 구암집에 번역되어진 비의 내용이다.

구산사비 음명(陰銘) 병서(並書) 후학 양천(陽川) 허목(許穆) 삼가 짓고 쓰다.



구산사당(龜山祠堂)은 구암(龜巖)선생의 사당이다. 선생은 도덕을 수양하여 저절로 드러났으며, 명종(明宗)임금을 섬길 때 증용되어 대사간(大司諫)과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임용되었다. 처음에 갑과(甲科)로 나아갔으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 맡기를 자청했다. 무려 19년간을 봉양했으니, 품행과 도의는 남보다 더욱 어질고 뛰어났으며, 행정에는 반드시 교화를 우선으로 삼았다. 그러한 까닭에 이르는 곳마다 현인의 교화가 있게 되었으니, 경주에서는 서악정사(西岳精舍)를 짓고, 순천부(順天府)에는 경현당(景賢堂)을 지어, 전대의 현인들에 대한 큰 제사를 행했다. 유생들을 모아 학문을 익히게 하니, 제자들은 나날이 진보했다. 일찍이 사간원(司諫院)에 있을 때, 도리를 다스리는 일에 대해, 무수히 설명한 바, 명종임금께서는 수차례 조서를 내려 임용하려 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상소로써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방법을 진술하니, 모두 논리에 알맞았다.

만죽산(萬竹山)에 기거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니, 자적하면서 올바른 도리를 즐겼다. 선생은 소년시절 규암(圭庵) 송인수(宋麟壽)선생에게 나아가 학문을 익히고, 나중에는 퇴계선생에게 나아가 큰 도리를 깨우쳤다. 이리하여 옥계(玉溪) 노진(盧禎, 1518~1578년) 선생과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년) 등 여러 군자들이 모두 그를 현인으로 추존했다. 후일 은사(隱士) 정두(鄭斗)가 그러한 도덕의 근거를 여러 차례 논한 바, 그 전모가 더욱 상세하게 밝혀졌다. 대체로 깨끗함을 엄격함으로 삼았다. 관대하면서도 법도가 있었고, 용서함이 있었으나 함부로 하지 않았으며, 곧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았다. 옛것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며, 상례(喪禮)와 제사에 신중했으며, 은혜와 의리에 두터웠다. 그 학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쉽게 알고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에 힘쓰고, 그것을 미루어 성명(性命)의 오묘한 이치에 이르도록 함을 순일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일찍이 《성리유편(性理遺編)》과 《경현록(景賢錄)》을 집필했으며, 또한 초고 1권을 남겼는데, 모두 간행되어 세상에 알려져 있다.

선생의 성은 이(李)씨며, 휘는 정(楨), 자는 강이(剛而), 호는 구암(龜巖)선생이라 부른다. 선생은 정덕 칠년(正德 七年, 1512년)에 태어나, 융경 오년(隆慶 五年, 1571년)에 돌아가셨다. 만력 39년(萬曆 三十九年, 광해군 3년, 1611년)에 고장사람들이 고향마을에 사당을 세워, 구산사(龜山祠)라고 이름 지었으며, 비석에 그러한 일을 새겼다. 명문(銘文)은 다음과 같다.

현명(玄冥)은 물을 다스리는데 힘썼으니 제사 지내고, 용사(龍師)은 땅을 다스리는데 힘썼으니 제사 지낸다. 선생의 가르침은 후세에 미칠 것이니, 마땅히 천만번의 제사로써 보답해야 하리라!

숭정(崇禎) 18년(仁祖 23년, 1645년), 2월에 세우다. 유사 백몽경(白夢庚), 정치의(鄭維宜)

모의재(慕義齋)와 춘산정(春山亭)



참지공파 제25세 이 영 철



저는 28년 전 1991년에 저희 할아버지인 춘산거사(春山居士)의 유적비를 학념계(鶴念契)일동이 세우면서 황송한 마음이 있었으니, 윗대에 현조(顯祖)님이 계시는데 차서(次序)를 지키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부지를 여유 있게 마련하여 언제인가는 현조(顯祖)님의 비석들을 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문중과 협의해 합천 용주의 유택(幽宅) 12기를 이곳 선영(先塋)으로 모셔오고, 군(郡)과 교섭하여 1억원에 가까운 많은 지원을 받고 부족한 것은 전액 자비로 부담하여 3년 전 2016년에 제막식(除幕式)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 몇 가지 기록들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초은(樵隱) 사천이공(泗川李公) 신도비(神道碑)

사천이씨 집성촌인 거창 가조 광성(廣城)의 기리(基里) 임야 933-7번지에 지중추부(知中樞府) 지사(知事)를 역임한 초은(樵隱) 사천이공의 신도비를 세우니 뜻있는 일이다. 공(公)의 휘(諱)는 을규(乙樛)이고, 호(號)는 초은(樵隱)이다. 증조(曾祖)의 휘(諱) 흥종(興宗)은 효행이 있었으며 증직(贈職)이 집의(執義)이고, 할아버지의 휘(諱)는 수화(秀華)로 성균생원(成均生員)이다. 아버지의 휘(諱)는 경(經)이고 호(號)는 매강(梅岡)으로 국선생(國先生)인 구암(龜巖) 휘(諱) 정(楨)의 4종형이며, 중종원년 1506년에 무과급제하여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이르렀으며, 파조(波祖)이다. 어머니 진주하씨(晉州河氏)는 선무랑 응(應)의 따님으로 슬하에 6형제를 두셨는데 공(公)은 제6남이다.

초은공(樵隱公)은 훌륭한 가문의 가풍에 젖어들어 학문을 익히고 효제의 덕행을 실천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라는 고관직(高官職)도 잘 수행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公)의 백형(伯兄)인 생원공 휘(諱) 을지(乙枝)는 남명 조식과 도의(道義)로 사귀었고, 제5형인 매은공(梅隱公) 을추(乙樞)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중추부(中樞府) 동지사(同知事)를 역임했으니 동기간에 어찌 유사함이 없겠는가. 공(公)은 슬하에 남매를 두었으니 아들 민영은 호(號)가 서강(西岡)으로 통덕랑(通德郎)이고, 사위는 진주 하응근(河應鯤)이다. 친손은 이문(以文)과 무후(無后)한 성민(誠敏), 외손은 하(河) 천주(天澍), 천윤(天潤), 천우(天雨)가 있는데 천주(天澍)는 호(號)가 신계(新溪)로 남명의 문인으로 효행이 뛰어나 진양지 인물조에 등재되고 진주 정강서원(鼎崗書院)에 봉향되었던 유현(儒賢)이니, 어찌 외할아버지인 초은공(樵隱公)의 영향이 없다 하겠는가. 초은공(樵隱公)이 합천 용주면 봉기에 이거(移居)하여 세거(世居)하다가, 내손(來孫)인 의제공(義濟公) 휘(諱) 명순(命淳)이 거창 가조면 학산으로 복거(卜居)했으니 거창 입향조(入鄉祖)이다.

2. 의제처사(義濟處士) 사천이공(泗川李公) 숭모비(崇慕碑)

공(公)의 휘(諱)는 명순(命淳), 자(字)는 근심(謹深), 호(號)는 의제(義濟)로서 사천인(泗川人)이다. 공(公)은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에서 입거창(入居昌)했고, 아버지 인황(仁晃)과 어머니 김해김씨(金海金氏)의 독남(獨男)으로 1700년에 생(生), 1962년에 졸(卒)하여 향년 64세, 족보에 효자요, 사적(事蹟)이 영남루대지(嶺南樓臺誌)에 기록되었다. 부인 달성서씨(達城徐氏)는 1699년에 생(生), 1762년에 졸(卒)하여 향년 64세이다. 공(公)의 장자 휘(諱) 태강(泰綱)은 큰 효자이고 차자 휘(諱) 태중(泰仲)은 국상시(國喪時) 심상(心喪)3년을 했다. 공(公)의 호(號)를 따라 모의당(慕義堂)을 1946년에 창건하며, 6세손 상조(尙祚), 상열(尙烈, 春山公)을 비롯해 온 종중의 협력으로 건립하였으나, 60여년의 세월로 누추하여 2004년에 전 자손의 성금으로 중건하였다.



3. 춘산거사(春山居士) 사천이공(泗川李公) 유적비(遺蹟碑)

공(公)의 휘(諱)는 천추(千秋), 자(字)는 익서(益瑞), 보명(譜名)은 상열(尙烈), 호(號)는 춘산(春山)이다. 공(公)의 아버지의 휘(諱)는 재영(在榮)이고, 자(字)는 치화(致華)이며, 호(號)는 성암(星庵)이다. 어머니는 합천이씨(陝川李氏)이고 1886년에 생(生)하여 독남이고 부인은 거창유씨(居昌劉氏)이다. 공(公)은 엄친의 슬하에서 유년시절부터 재주가 뛰어나고 효심이 지극하였으며 글 읽기를 좋아했고 성품이 공명정대하며 근면성실하여 총명한 가운데 학문을 닦고 삼강오륜의 법도와 인의예지의 성론(聖論)을 인생의 목표로 지켜 집안과 동네 이웃사람들의 선인(善人)으로 칭송을 받았다.

4. 춘산정(春山亭)

춘산거사(春山居士)는 주역(周易)과 침술(鍼術)에 통달하여 많은 세인들을 구제하고 서당에서 강학(講學)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적선지가문(積善之家門)으로 향리에 규범을 보였다. 공(公)을 추모하기 위해 1989년 사후에 학념계(鶴念契)를 창계(創契)하고, 광성촌 앞 입구에 공(公)의 유적비(遺蹟碑)를 1991년에 세웠다. 공(公)의 유지(遺志)를 받들기 위해 장손 영철(永哲)군이 이 정(亭)을 건립하여 공(公)의 호(號)를 따라 춘산정(春山亭), 대문은 계명(契名)으로 학념문(鶴念門)으로 정(定)하였다.

클여 읽는 구암행장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근

사천(泗川)이 본관(本貫)인 이정(李楨)선생은 호(號)가 구암(龜巖)이다. 선생은 1512년 사천현 구암동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가학(家學)을 전수받아 기초적인 학문과 경전을 배운 바탕 위에서 행실을 닦을 줄 알았으며, 마침 사림계의 유명인사인 구암 송인수가 바른 길을 주장하다가 조정에 용납되지 못하고 쫓겨나 사천에 귀향 와 있었으므로, 구암이 그에게 나아가 성리학을 배웠다. 학문을 완성하여 25세 때인 1536년(중종31년) 촉망부로서 문과별시에 장원급제, 3월에 처음 성균관 전적을 시작으로 관직에 나서게 되었다.

그 해 7월에는 군기시 주부를 거쳐 9월에는 사헌부 감찰이 되었고 그 이듬 해 4월에는 선교랑, 9월에는 승훈랑이 되어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외교관으로서 국제적 안목을 넓혔을 뿐 아니라, 특히 송나라 학문에 관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옴으로써 뒷날 성리학 연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6년 뒤에 예조정랑을 역임한 뒤 1541년(중종36년) 정월에 최초의 외직인 경상도 영천군수(榮川郡守)가 되어 그 곳에 5년 임기를 다 채웠다. 이때 구암은 영천군수로서 민풍순화, 지방교육 진흥 등 많은 치적을 올렸을 뿐 아니라, 퇴계학파의 본 고장인 안동권에 수령으로 재임하면서 그 곳 명현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처음 퇴계선생에게 제자의 예로 방문, 사제관계를 맺게 됨으로써 구암과 퇴계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군수의 임기가 다되어 관찰사가 정사를 잘 다스린 내용을 글을 써서 임금에게 아뢰니, 품계를 올려주었다. 1546년(명종1년) 2월에 군자감 첨정을 거쳐 5월에 정3품계에 승진되고 9월에 평안도 숙천부사(肅川府使)에 제수되었으나, 아버지가 늙었다는 것을 걸군(乞郡; 노부모가 있을 때 부모의 봉양을 위하여 고향의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던 일)하여 선산부사(善山府使)가 되었다. 관내를 자주 순찰하여 민정을 살펴 선정을 베풀고 야은(治隱) 길재(吉再)의 사당을 배알하고 사당을 정비하는 한편, 야은의 유적지를 탐방할 때마다 시로서 유덕을 칭송하였다. 이듬해 부민(府民)이 자기의 누이가 억울하게 사형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는데, 감사는 극력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구암은 그의 억울함을 밝히다가 뜻이 맞지 않자 곧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다.

이에 감사는 조정의 승인도 받기 전에 임소를 멋대로 버렸다는 구실을 부쳐 남은 임기 기한 내 다른 관직에 제수되지 못하게 하였다. 을사사화 때는 외직에 있었고, 또 선산부사 1년 미만의 기간 고향에 있으면서 스승 구암(송인수)과 관포(어득강)를 추모하는 찬(贊; 행적을 기리는 글)과 시를 남겼고, 구암가(龜巖歌) 등 많은 시를 지었다. 또 집에 있는 지 3년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상례를 본 사람들이 모두들 예를 안다고 감탄하였다.

삼년상을 다 마치고 1552년(명종7년) 6월에 공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몸의 허약으로 부임하지 못하였고, 8월에 흥문관 응교를 거쳐 9월에는 성균관 직장에서 다시 사성에 승진되자 대사성에 제수된 퇴계선생과 함께 근무하게 되니, 이에 성균관의 많은 학자들이 학예에 감동되어 떨쳐 일어났다. 이 해 10월에 청주목사(淸州牧使)로 부임, 1556년(명종11년) 1월에 건강을 이유로 사임할 때까지 3년간 선정을 베풀어 크게 잘 다스려졌으므로 명종이 훌륭하게 여겼고, 또 구암의 품행과 도의가 임금에게 들려 통정대부로 발탁하였으며, 주민들은 구암의 선정을 비를 세워 애모하였다. 그 뒤 한 때 부호군을 제수 받았으나 관직을 사양하고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주로 고향 사천에서 살았고, 1558년(명종13년) 4월에 남명(南冥), 이공량(李公亮)이 구암의 집에서 1박을 한 후 사천 축동 구호리 안산에 있는 고려시대 장수 이순(李珣)의 쾌재정(快哉亭)에서 김홍(金泓), 이희안(李希顔)을 만나 함께 섬진강을 거슬러 지리산을 등반하였는데 거기에 관한 행적은 남명의 유두류록에 잘 표현되어 있다.

48세 때인 1559년(명종14년) 6월, 우부승지를 시작으로 승정원(임금의 비서실) 승지로 근무하면서 좌부승지, 좌승지 등을 역임하여 왕명을 출납하는 시종지신으로 임금을 가까이 모셨다. 일찍이 고향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갈 적에는 명종임금이 구암의 집에 늙급(糜給; 관에서 돈과 곡식을 지급하는 것)을 하도록 경상도 감사에게 하명하여 구암의 효성을 칭찬하여 장려하였다. 1560년(명종15년) 5월 병조참의로 승진되었다가 곧 사간원(임금에게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기관)의 장관인 대사관에 발령

되어서는 글을 올려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였으나, 구암 자신은 그러한 요직을 탐탁해 여기지 않은 끝에 그 직을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상호군, 호조참의, 예조참의를 거쳐 그 해 9월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제수되었고, 곧이어 12월에는 3대 추증(追贈)이란 특전을 받았다. 경주부윤으로 2년여 재직하면서 옛 관습을 묻고 폐정을 다스리는 한편, 신라 역대 왕의 묘를 새로이 고치고 백성에게 공덕이 있는 왕의 묘에는 특별히 제사를 지냈다. 또 중요한 문제는 퇴계의 자문을 구하면서 수령으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하면서도 도산서당을 수차 방문하는 한편, 서신을 왕래하면서 서약정사를 짓고 여러 유생을 모아 학문을 강의하니, 이에 경주의 교육이 성대하다 칭송되었다.

52세 때인 1563년(명종18년) 1월에 경주부윤의 임기를 마치고 들어와서 9월에 호조참의가 되었다가, 그 해 11월에 다시 나아가 순천부사(順天府使)가 되었다. 전에 폐주 연산군이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한 때의 현인명사(賢人名士)가 많이 죽었는데, 한훤당 김굉필 선생도 이곳으로 귀양 와 있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다. 한훤당의 유적으로 옥천 시냇가에 임청대가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대(臺)를 보면서 비통해 하였고, 순천 서쪽에도 유적이 있는데, 구암이 2년여 재직하면서 김굉필과 조위(曹偉)의 유적을 탐방하고 경현당을 세워 제사지냈다. 이어서 한훤당의 유문과 사적을 수집, 정리하여 경현록을 간행하고 또 옥천정사(玉川精舍)를 세워 퇴계의 글씨로 집 이름과 현관의 글자를 받아 달고 선현봉사와 지방자제 교육을 장려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1566년(명종21년) 4월에 어머니상을 당하니, 구암의 나이 55세였으나 몸이 상하도록 곡읍하였으며, 또 명종의 국상이 겹치매 이미 상중이었으나 임금을 위하여 곡읍(哭踊; 초상 때 매우 슬퍼 큰 소리로 통곡하며 뛰는 것)하는 차례를 만들고 참최복(상례의 5가지 복장 중에 첫째)을 입었다가, 다시 재최복(상례의 5가지 복장 중에 둘째)으로 어머니의 상사를 마치니, 이로 말미암아 남쪽지방 사람들이 비로소 상중에 임금의 상복 입는 절차를 알게 되었다.

58세 때인 1569년(선조2년) 탈상 및 명종의 심상을 마치고 고향에 있을 때인 9월에 불려 흥문관 부제학을 삼으려 하였으나, 글을 올려 사양하고 이어 권계하는 말 수천 글자를 진달하니 모두 격언이요 지론이었다. 이로 부터 모든 임명함에 일체 나아가지 않았고, 앞서 5월에 거쳐하는 가가이에 대관대와 구암정사를 지었는데, 왼쪽에 거경재, 오른쪽에 명의재라 이름을 짓고 날마다 유생과 학문 강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배우는 사람들이 구암선생이라 일컬었다.

1971년(선조4년) 6월에 선생의 발에 종기가 솟았는데 여러 가지 약과 침으로 다스렸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고, 7월에 접어들자 병세가 악화되어 7월18일 드디어 세상을 뜨니 향년 60이었다. 구암의 생애에 가장 관련이 많았던 퇴계와 남명도 퇴계는 1570년에 죽고, 남명도 구암이 별세한 7개월만인 1572년 2월에 죽었다. 즉 3년에 걸쳐 3인이 차례로 죽으면서 그 관계도 끝을 맺었다.

구암이 별세한 그 해(1571) 8월에 선조는 제문을 내리고 예관으로 예조정랑 정은신을 보내 치제하였고, 장례 때는 현학사우 문생들과 제문과 만사가 많았는데, 선조의 사제문을 비롯한 제문 20장과 만사 18장이었다. 구암선생은 단정하고도 정성스럽고 너그럽고도 엄하며, 옛 도를 좋아하고 선행하기를 즐겼으며 상제(喪祭)를 삼가고 은의(恩義)를 도타이 하였으며, 집에 있으나 관아에 있으나 모두 잘 하였다. 만년에는 도를 믿음에 더욱 독실하여 배움을 일으키고 글을 숭상하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았다. 송나라 이후 여러 유학의 도학자가 우리나라에 대대적으로 보급된 것이 선생이 처음 간행하여 널리 펴음으로부터 였다고 한다.



이황, 조식 선생의 논쟁과 구암 할아버지에 대한 단상! (벌써 고2가 된 아들을 떠올리며!)



참지공파 제25세 이 호 중

가문의 뿌리를 궁금해 하던 아들이 벌써 고2가 되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이 콧수염이 제법 거뭇해진 청소년으로 성장해 대학입시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세월이 빠름을 느끼게 된다. 기고를 한 지 여섯 해가 흘렀어도 아들의 조상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역사공부로 이어져, 대학전공도 역사관련 학과로 진학하려고 하니 여간 대견스럽지가 않다. 내심으로는 로스쿨을 목표로 하여 법조인의 삶을 이어가 주길 바랐지만 그 고집은 꺾일 것 같지가 않으니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다.

간간이 물어오는 아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나도 족보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학창시절 이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퇴계 이황 선생에 대한 관심이 구암 할아버지와 친분과 인연으로 인해 되살아나기까지 한다. 자연스럽게 당대 최고의 라이벌 남명 조식 선생도 떠오른다. 특히, 남명은 내가 나고 자란 경상우도의 대표적 학자인지라 더더욱 몰입하게 된다.

얼마 전 고등학교 밴드에 남명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 고교 대선배이자 조식 선생의 후손인 재력가가 남명학진흥재단을 통해 수십 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후원사업을 해 왔다는 내용이었다. 내심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도 대중회에서 문중사 발간을 준비중이고 장학금 조성사업도 활발하게 추진중이라 문중원들이 십시일반 협력해 나간다면 우리 문중도 머지않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듯하다.

율곡 이이의 제자들인 서인과 대립하며 형성되었던 동인세력이 남명과 퇴계의 제자들의 사상 차이로 결국 퇴계의 제자들인 남인세력과 남명의 제자들인 북인세력으로 분화되어 조선중기 이후 당쟁이 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사상의 차이는 같은 해 태어난 당대 두 거장 학자들의 논쟁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그 유명한 이황과 조식의 논쟁은 사소한 차이에서 출발하여 각자의 제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극한 대립보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정립도 가능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사람은 동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서로 대면한 적도 없었으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서로에 대한 비방으로 이어지고 그 제자들에 의해 첨예하게 대립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과 각자의 학문적 깊이와 업적은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성현들임은 분명하다. 여기서 언뜻 구암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건 너무 아전인수격 반응인가? 동시대에 조금 늦게 태어났지만 두사람과 공히 교류하며 친분을 쌓아간 구암 할아버지의 인품과 학문적 소양은 우리 문중에서 큰 소리로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

작금의 현실 역시 상생의 정치보다는 대립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오직 자신들만이 국민을 실제로 위하는 것인 양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리고 들어주는 마음가짐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진심이 아닐까? 구암 할아버지는 관직을 제수받아 중앙정치도 하였고, 이에 연연하지 않고 연로한 부모봉양을 위해 지방관직을 수행하며 선정을 베풀며 효행도 뛰어났으며, 왜구의 침입에도 강력히 대처한 장수이자 후진양성에도 힘쓴 교육자이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분이 아닌가?

해마다 봄날은 어김없이 다가오지만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그 향취가 매년 새롭다. 내년에는 더욱 향기로운 내음이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문중에 흠뻑 퍼질 것들길 기원한다. 그때쯤이면 아들도 고3이라 더욱 바빠지겠네! 파이팅!!

2019년 봄날에 서울 서초동에서

구암(龜巖) 이정선생(李楨先生) 별묘(別廟)

우소재공파(宇疎齋公派) 소문중(小門中)

구암 이정선생을 향사(享祀)하기 위하여 건립한 신당(神堂)으로 본래 향사를 사천읍 구암리 구계서원(龜溪書院)에서 모셔오다가 1868년(고종5년) 대원군(大院君) 집정 때 전국의 사액서원(賜額書院) 철폐령에 따라 서원이 훼철(毀撤)되자 후손(後孫,우소재파)들이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529번지 대신마을 중간에 선생의 봉사당(奉祀堂)을 세워 정부인(貞夫人)의 령심씨(宜寧沈氏)와 함께 해마다 제향(祭享)하고 있다.



‘생(生)과 사(死)’에 대한 실화(實話)



성진사공파 25세손 이 영 규

오늘 우리 종인에게 있었던 실화를 소개하며, 여기에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는 생(生)에 관한 것으로 살아있을 때 부모가 산에서 죽은 고기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 점이며, 둘째는 사(死)에 관한 것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한 장소가 문제이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원인으로 피해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생(生)과 사(死)’의 동안에 이러한 불행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1. 생(生)에 대하여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정말 못 살았다. 왜 조상들은 그렇게도 못 살았을까? 1950년 해방되던 전후, 제24세 석진씨는 고성군 상리면의 어느 산골짜기에 살았다. 가난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는 골짜기에서 나무를 하여 팔아,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하여 생계를 이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큰 짐승이 산돼지를 잡아먹고 머리를 두고 간 것을 목격했다. 석진씨는 그 머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조상의 제사용으로 사용하고 먹었다. 그 당시 석진씨 부인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1924년에 그들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종규씨였다. 출생했을 때 당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의 병을 낫게 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그 당시 의술이 부족했을 때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저렇게 하여 성년이 되도록 살아왔다.

2. 사(死)에 대하여

때가 되어 종규씨는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 사천군 정동면에 살던 연일정씨 집 딸이 1935년에 태어났는데 그녀는 소아마비로 자라왔다. 혼인 시기가 되자 종규씨와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종규씨는 남의 집에 고용살이로 하며 살았고, 부인은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2십리 떨어진 사천시장까지 걸어가서 판 돈으로 자녀를 공부시켰으며, 그녀는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허드렛일을 하는 등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였다.

둘째 아들인 복진씨(1970년생)는 공부도 잘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육군 제3사관학교에 입학하였고 육군 대위까지 진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방에서 중대장으로 부하의 사고로 인하여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다. 복진씨가 군대에 있었을 무렵의 무더운 여름의 어느날 아버지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상여할 형편이 안되어 그 동네 동민 몇 분이 뒷산 공동묘지에 묻었는데 그 터가 명산이었을까? 자녀들의 일은 잘 풀렸다. 그 후 어느날 어머니가 죽자 부락 앞산에 장지를 구하여 무덤을 할 시 어머니와 함께 쌍봉을 하면서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였다. 이후 이것으로 인한 건지 집안에는 우환이 계속 되었다고 한다.

분수(分數)를 알고 지키는 사람



백인재공파 25세손 이 형 환

부모의 덕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라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 세상을 떠날 땐 빈 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세상에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수(數) 그것이 분수(分數)이며 성수(成數)는 살아가면서 능력에 따라 늘려갈 수도 있고 잘못하여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란 말처럼 얼마만큼 성실하게 노력하고 사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자라면서 배우고 익힌 재능으로 키운 성수만큼 복을 누리는 것이요, 복은 살아가면서 늘릴 수도 쪼그라들 수도 있다. 즉 얼마만큼 성실하게 노력하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사람은 먼저 군자(君子)가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군자(君子)란 사전적 의미는 학식과 덕행이 높은 사람, 마음이 착하고 무뎠던 사람을 말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본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고 신뢰가 있으면 돈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보아 자식을 낳아 군자를 만드라고 권했다

군자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공자께서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경계해야 할 것은 젊어서는 여색을 경계하고(少之時戒之在色), 장성하여서는 다툼이나 싸움을 경계하고(壯也時戒之在鬪), 늙어서는 얻음을 경계(及其老也時戒之在得) 하라고 하셨다. 즉 재물을 모으는데 욕심을 너무 내지 말라고 하셨다. 또 세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첫째 지명(知命:天命을 안다) 둘째 지례(知禮:예를 안다) 셋째 지언(知言:언어를 안다) 누구나 한 번은 음미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무리 “재주(才)가 능한 자라 하더라도 덕(德)이 있는 자를 당해낼 수는 없다” 재주 많은 사람은 자신만을 이롭게 할 수 있지만, 덕을 품은 사람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자 말씀의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隣 -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말씀)이 떠오른다.

긍정적인 나를 생각하며



우소재공파 제25세 이영춘

웃기를 여미게 하는 아침 등굣길, 교문에서 저는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며 학교 아이들과 즐겁게 인사를 나누며 활기차고 마시멜로 같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시나요? 마시멜로는 부드럽고 달콤한 젤리 같은 사탕입니다.

어느 날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박사는 보고 있으면 먹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시멜로를 이용해 실험을 했습니다. 4~5살 되는 아이들을 각기 다른 방으로 보내어 혼자 있게 했습니다. 조금 뒤 상냥한 아가씨가 들어와 탁자위에 마시멜로를 한 개씩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15분 후에 다시 돌아올 거란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탁자 위에 놓아둔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상으로 마시멜로를 한 개 더 줄께.”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 버렸고, 3분의 2는 먹고 싶은 마음을 꼭 참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멜로를 상으로 한 개 더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그 실험이 있던 지 10년 후 연구원들은 10년 전 마시멜로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 부모에게 아이들의 재능과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꼭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학교성적이 더 좋았고 친구들과도 잘 사귀었으며, 자기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시멜로의 실험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더 큰 만족과 보상을 위해 당장의 욕구 충족을 미룰 줄 아는 의지가 바로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고 게임 하는 눈앞의 마시멜로보다 참고 노력하면 더 큰 성공, 마시멜로를 하나 더 얻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있다가 하나 더 받은 아이들은 왜 나중에 더 잘 되었을까요?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스스로의 욕구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이며, 이것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또 욕구를 잘 참았다가 보상을 받았던 경험은 그 후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어 치우기 전에 30초만 더 생각하면 인생이 뒤바뀔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마시멜로보다 더 큰 마시멜로를 선물 받아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하는 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사모시는 정성



참의공파 25세손 이준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는 말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많다는 말이

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지극히 일부만 가지고 울고 웃고 아프고 좋아하고 들 한다. 이것 역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살펴보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어렵다고 한다. 먹고 살기가 죽겠다고 들 한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여 지금의 삶은 월등하게 낫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오천 만 명 이상 국가로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나라다. 3050국가 중의 하나다. 전 세계에서 일곱 개 나라 밖에 없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물론 GNI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29개 나라가 있다. 하지만 인구 5천 만 명에 이상으로서 3만 달되는 국가는 일곱 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겁먹고 죽겠다고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미리 주눅이 들어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사업이 잘되고, 돈도 많이 받고, 집안이 화목하고, 식솔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강건한 집안사람들의 공통점은 대개 정성이 지극하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과 하는 일들에 기울이는 지극한 정성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정성도 매우 지극하다는 점이다. 지극하게 조상에게 제사를 모시는 것, 절이나 교회에서 지극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이 지극하고 신실한 것 등이 그것이다. 이러니 운이 좋고 흥(凶)한 일을 피하고 길(吉)한 일들만 생긴다는 것이다.

‘귀신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조상이 어디 있어?’, ‘살아 있는 할아버지도 힘을 못쓰는데 죽은 조상이 무슨 일을 도와줄 수 있어?’ ... 등등의 말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멸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도 가벼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삶이 고달프고 하는 일에 고(苦)가 많다.

어쨌든 우리 문중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에게 진솔하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성실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꽃 같고 향기 같은 사람이 되고, 하는 일들과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며, 조상에게 낮이든 밤이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생기발복, 운수대통하는 세상살이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새마을정신



성균진사공파 26세손 이영섭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참으로 안타깝다. 재산 때문에 부모의 장례도 치

루기전 장례식장에서 형제자매간에 난투극이 벌어지는가하면, 잘못을 꾸짖는 부모를 살해하고, 남의 귀중한 생명을 뺏는 등 위 아래도 없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사라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는 날이 갈수록 혼탁이 더욱 심해지니 말이다.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문을 인쇄했으며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였던 옥파(沃坡) 이종일(李鍾一, 1858~1925)은 개화기의 선각자로서, 해이되고 무력해진 국민정신으로부터 각성하여 자주(自主)자강(自強)의 진취적인 선개정신(先改情神)으로 개화된 신촌정신(新村精神, 오늘날의 새마을정신)을 일으켜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이며 자주적이고 활동적 국민이 되자고 선각적 호소를 했다고 金容浩저서 「옥파(沃坡) 이종일(李鍾一) 연구」 책에서 밝히고 있다.

“새마을정신을 특별히 내세우는 것은 먼저 정신을 개조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풍요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견지해온 신념이며理想이다. 이에 나는 신문창간사업을 결심했고 제국신문을 창간한다.” 고 옥파(沃坡) 비망록에 기술하고 있다.

사천시에서도 경제건설과 인문도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필자: 前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수)

바지런히 살고 있나요?



참지공파 24세손 이기명

바지런히 살고 있나요? 그럼요. 오늘도 주력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바지런히

살고 있어요. 기쁨을 주는 일인가요? 복을 지을 일인가요? 오늘은 복을 지을 일이에요. 복(행복)이 무엇인가 알기는 아나요? 소득을 위한 일로, 만남으로, 좋은 소식으로, 배움으로, 깨우침으로 기분이 좋음, 기쁨, 즐거움, 하고 싶은 것을 해 내는 성취감, 운이 좋다고 느끼는 고마움인 것 같아요.

얼씨구! 그럼 복은 어디 있나요? 아무래도 일상 늘 안전해야겠지요. 누구는 착한 마음에 있다하고, 100세 노인은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하고, 어떤 이는 (생활 속에서 틈틈이 체조하는) 건강이 복이다 하고, 부모님은 우애하는 가정이 복이다 하고, 성공한 사람은 꾸준히 노력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듣고 보니 안전, 건강, 착한 마음, 사랑, 우애, 노력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가 봐요. 무엇보다 살아가며 맡은 바 일을 성실·열심히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만남이 진짜 복이지요.

얼씨구! 좋은 환경, 배우자, 선생, 책, 친구, 선배, 이웃, 좋은 대화시간(웃으며 이야기하기), 하고 싶은 일거리, 소일거리, 좋은 기분(평안을 느끼는 시간), 팔자 좋구나.

얼씨구! 팔자 좋은 사람은 마음 안에 누가 있는가를 아시겠네요. 마음 안에 선과 악이 있는데 악(불량)을 밟아 기쁨매듭 던져내고 나면 곡식 같은 선(선량)이 힘을 펴고 자라고 있는 마음을 양심이라 한다오. 양심 안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사랑, 자비, 성심이 있대요. 이것을 부릴 줄 아나요? 알다마다요. 마음이 덕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심동덕(同心同德).

얼씨구! 덕(德)이 무엇이요? 밝고, 옹고, 크고, 착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실이라오.

생각해 보니 우리들의 생활 속에 부모님, 선생님, 선배로부터 자주 들은 것 같아요. 예사로 들어 넘긴 말씀을 챙겨서 마음을 추스르면 인식이 개선될까요?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지나온 세월 경험 속에, 실패 속에 깨우침이 모여서 어르신들의 말씀이 삶의 지혜로 귀에 쟁쟁이 들려와서 생각과 마음에 버려져서 거듭거듭 선량한 행동하다보니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삶을 복되게 한다는 것을 느낌으로 다가오니 바지런히 살고 있어요. 무리하게 하지는 마시고 건강하세요. 얼씨구! 덩더쿵이요.

단기4352년 서기2019년 3월에..

*바지런하다 = 놀지 아니하고 하는 일에 꾸준하다.
*기쁨매다 = 김매다 = 논밭의 잡초를 뽑아내다.
*버려져 - 버리다 = 무디어진 쇠붙이 연장을 불에 달구어 두드러져 날카롭게 만드다. 잘 들게 하다.

소식지 9호 원고 모집



여기 소식지 9호에 담을 원고를 청탁하오니, 부디 사양마시고 보내 주시면, 정성드려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겠습니다.

- ★ **소식지의 성격** : 사천문화 또는 학술적인 것 보다 일상생활 주변 이야기 중심으로 가볍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소식
- ★ **원고의 장르** : 각 문종의 선조 또는 자손 이야기, 기행문, 수필, 시, 사진, 편지글, 논설, 종인들의 소식, 대중회 운영 현황 등
- ★ **원고의 분량** : 제한 없음(반드시 개인사진, 자료사진 포함)
- ★ **원고 송부 마감 일시 및 소식지 9호 발행 일시** : 2020년 3월말, 대중회 춘향제
- ★ **소식지 발행에 따른 기부금 접수 또는 광고비** : 대중회 사무국
- ★ **원고를 보낼 곳** : e-mail ✉ leeyg@chol.com

편집위원 이영근 (선무량공파 제24세, 010-2586-2094)